



학습 전략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신입생 여러분께

임대균*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사회생활을 하는 선배들이 신입생이었던 제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대학 때는 이것저것 많이 해봐, 가급적 많은 경험을 해야 해, 대학 때 읽은 책, 듣는 음악 등 인문학적 교양들이 네 평생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사회에 나오면 일에 바빠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어내기가 빠듯하고 새로 약기를 배운다거나 관심 분야에 몰두해보는 등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대학생활을 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경험과 활동을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대학생활을 바람직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먼저 대학을 거쳐 갔던 많은 사람들이, 대학시절을 통해 아쉬움을 갖는 여러 부분들을 짚어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일이니깐요. 사람들이 곧잘 ‘아,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건데…….’ 하고 자책하듯 말합니다. ‘대학은 인격도야의…….’로 시작하는 고루한 표현이 있죠? 대학시절만이 아니라 기실 삶이라는 과정은 깨닫고 깨어지고 그 깨어짐을 바탕으로 더욱 크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더 넓은 세계의 문을 열어가는, 끝이 없는 변증법적인 수행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간 과탐(학과 내에서 최고 학점)도 두 학기를 해보고, 매학기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학내에서 동아리 두 개를 조직하고 학내 매체를 만들어 편집장 활동을 하며 대내외 만나고 싶었던 유명 인사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글을 쓰고, 삶을 찾아 인도로 떠나고, 말을 타고 기마 역사를 다시 쓰며 국내 순수 제1호로



국토 중주를 하고, 신문에 정확히 세 번 인터뷰 기사로 등장하고, 시인으로 정식 등단하는 꿈까지 이루었다면 나름대로 알차게 보낸 대학생활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질풍노도의 대학기'를 정리하며 순수 대학생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그간의 제 경험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며 대학시절 뜻 깊은 여러 가지 일을 해낸 몇몇 제 주위 분들의 경험을 종합해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짧은 단언의 형식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라

학교에 갓 입학했는데 바로 나가 생활하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성인(成人)의 반열에 올랐으니(?) 밖에 나가 성인들과 만나며 사회 경험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기타 여러 동아리에 들어 활동을 할 때에도 가급적 학내의 작은 규모에서보다 큰 곳에 가서 배우세요. 기초부터 제대로, 정확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회 모임의 특징은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이란 곳은 기실 비슷비슷한 환경에 비슷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다양한 사람을 접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춤을 추고 싶은 사람들은 학외의 댄스 동호회에 가입해서 십년이 넘은 고수들에게 배우시고요. 정치·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정당에 바로 '입당해서' 활동해보세요. 다소 이상적인 학내의 조직들보다 당면한 현실 문제, 현실 정치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더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기초를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만들라

언제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인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훗날 나의 이력서에 그 일을 적어낼 수 있을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남이 해보지 않은 길을 뚫어보는 것도 큰 경험이 되겠지만 평범한 일을 택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훗날 자신의 이력서에 당당하게 적어낼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세요. 예를 들어 검도를 시작했다면 '대학 아마추어대회 개인전 준우승을 했다!' 그게 힘들면 '단체전에 참가해 이만한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최선을 다했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는 그 '최선의 결과물을 다른 누구누가 인정할 만한 것인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딪혀라. 상처도, 아픔도 모두 경험하는 것이다

상처 속에서 아파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파해본 사람이 아픈 것을 알고,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훗날 인생 앞에 닥칠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는 경험과 긍지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던 적극적으로 몰입하세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 아시죠? 사랑이건 사람이건 공부건 그 어떤 일이건 간에,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경험이라는 요소는 몰입할수록 더더욱 확실해지는 것이 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한번쯤 미쳐볼 수 있다는 것, 젊음에의 특권입니다.



먼 후일을 생각하라, 오래 남는 것들을 먼저 챙겨라

멀리보세요. 학점 놓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다 잘합니다. 3~4학년쯤 되면 대부분의 선배들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1~2학년 때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둘걸.' 세월은 도적과 같이 왔다 갑니다. 일에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오래 남는 것들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챙겨주세요. 남는 것은 결국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아니라 바쁜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렵게 따낸 학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껴라, 아껴야 잘산다

돈이건 음식이건 무엇이건 아끼세요. 아껴 먹고 절약하세요, 근검하세요. 아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세요.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아끼세요, 사랑하는 애인도 아껴주세요, 아껴서 아껴서 살다보면 뒤돌아보는 어느 순간, 많은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금지를 가져라

서울대학교가 각종 조사에서 세계 대학 서열 100위 안팎을 왔다 갔다 한다고 들으셨죠? 그러나 서울대가 투자량에 대비해서 내놓는 결과가 세계 3위 안에 든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속한 곳과 자신에게 금지를 가지세요. 금지가 없으면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일에 대한 깊이 있는 추동력을 얻기 힘듭니다. 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속한 여러 이름들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씩씩할 수 있는 자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수 있는 마음가짐은 몸에 밴 부지런한 습관과 아울러 오래도록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선배에게 배우라, 자신의 인맥을 관리하라

학교에서 강의를 들은 두 분의 교수님을 아직까지도 스승님이라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륜과 경험만큼 모두 아름다운 분들이시지요. 스무 살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연배가 높으신 것만으로도, 먼저 겪었다는 경험만으로도 그 일에 대해 남이 쉽게 알 수 없는 커다란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감탄하고 존경하세요.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연은 작은 오솔길과 같다, 자주 걷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서먹해졌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인연의 끈은 작은 안부 전화 하나에 튼튼해집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을 만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믿음을 주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내 곁에 두고 보고 싶습니다. 그럼 떠나게 하지 말아야지요. 인맥과 인간관계는 그런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춤 추라, 싸움을 하라

몸에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몸으로 태어나 몸 밖의 생(生)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춤을 춰보세요. '그 무엇도 필요치 않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격투기를 하세요.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상대와 마주 선 대련에서 몸의 두려움과 직면해보세요. 겸손해질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자신이 보입니다. 사람의 배고픔이, 몸의 질병들이 실제로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갖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보세요. 마음과 정신, 모두 다 건강해집니다.

메모하라

메모의 습관은 지능을 배가시킵니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사, 좋은 글 등은 메모하고 스크랩해두고 틈틈이 다시보세요. 사람들과의 대화를 풍요롭게 하고 관심 분야의 좋은 정보의 역할을 할 소재들은 의외로 새로 찾기 힘이 듭니다. 그러니 발견했을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군대생활 중에 만난 어떤 분은 17년간 '일상의 기록'이라 말씀하시며 가계부를 적고 계십니다. 재화의 흐름이 곧 삶의 흐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전역 후 사회 강연을 준비하시는 그분의 자산은 바로 첩첩이 쌓인 메모들과 수십 권 분량의 스크랩 기사들입니다.

여름엔 꼭 혼자 여행을 떠나라

방학 시간을 잘 이용해 꼭 여행을 가세요. 반드시 혼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의견을 잘 따라주는 조용한 친구 한 사람 정도면 좋습니다. 홀로 여행을 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주위의 반응이 점차 사라지고 생각의 초점이 명징해지며, 과거의 기억으로 회귀하는 자아 속에서 스스로를 객관적 시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나의 과거, 내가 했던 말, 과거의 일들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그 여행의 걸음걸음 중에 가능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긴 여행 가운데의 오랜 침묵과 낮선 공간 속에서 스스로가 낯설어지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